

청정 보성 전역서 '깨끗한 보성 만들기' 박차

야산·하천·농경지 등 12개 읍면 전수조사 실시 맑은 하천 조성·해양쓰레기 수거...예산 13억 투입

보성군이 12개 읍면 전역에서 대대적인 '깨끗한 보성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노령인구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마을 주변을 공동으로 청소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마을 주변에 농기계를 비롯한 영농 부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12개 읍면 전체가 참여해 대청소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마을 안길부터 하천, 농경지, 야산, 해안가까지 전방위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먼저 칸막이 없는 군정 실현으로 구석구석 깨끗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영농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악취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행정의 실현을 위해 보성군과 읍면 부서간 협업에 나선다.

보성군 기후환경과 주축으로 '깨끗한 보성 만들기' 청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폐기물 수거 및 처리계획에 따라 쓰레기 일제 수거, 읍면 행정지원, 민간 합동점검 등을 추진한다.

최근 12개 읍면 전 지역 전수조사를 마

쳤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일자, 배출 장소를 선정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내가 스스로 청결하리라는 자율적 분위기 속에 읍면별 30여명의 지원단이 방치된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등을 처리하면 군에서 수거할 예정이다.

군은 관내 431개소 하천을 모두 전수 조사한 뒤 천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제방의 잡목 제거 및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또한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해 도비 포함, 2억2천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오는 27일부터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한다. 하천 유수를 방해하는 지장목을 제거하고 하천 퇴적토를 준설해 재해를 예방한다.

보성군은 지난해 해양쓰레기 1천800여 톤을 처리하고 군민의 해양환경 인식개선에



보성군이 '깨끗한 보성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면 주민 등 읍면 관계자들이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도 어촌 및 어항시설 환경정비를 실시해 깨끗한 보성 바다 조성에 힘쓴다.

관련 사업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으로 보성군 여자민·독량만 일원에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11억원이다.

해양쓰레기 발생이 많은 해안가 중심의 연안 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사람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잡수부 등을 활용해 수중·도서 및 연안 해역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도 수거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어디를 가더라도 '역시 청정보성'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할 것"이라며 "깨끗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지도와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 꾸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성=임병원기자

고흥 거금대교, 탐방로 '새단장' 트리아트·벽화설치 등 포토스팟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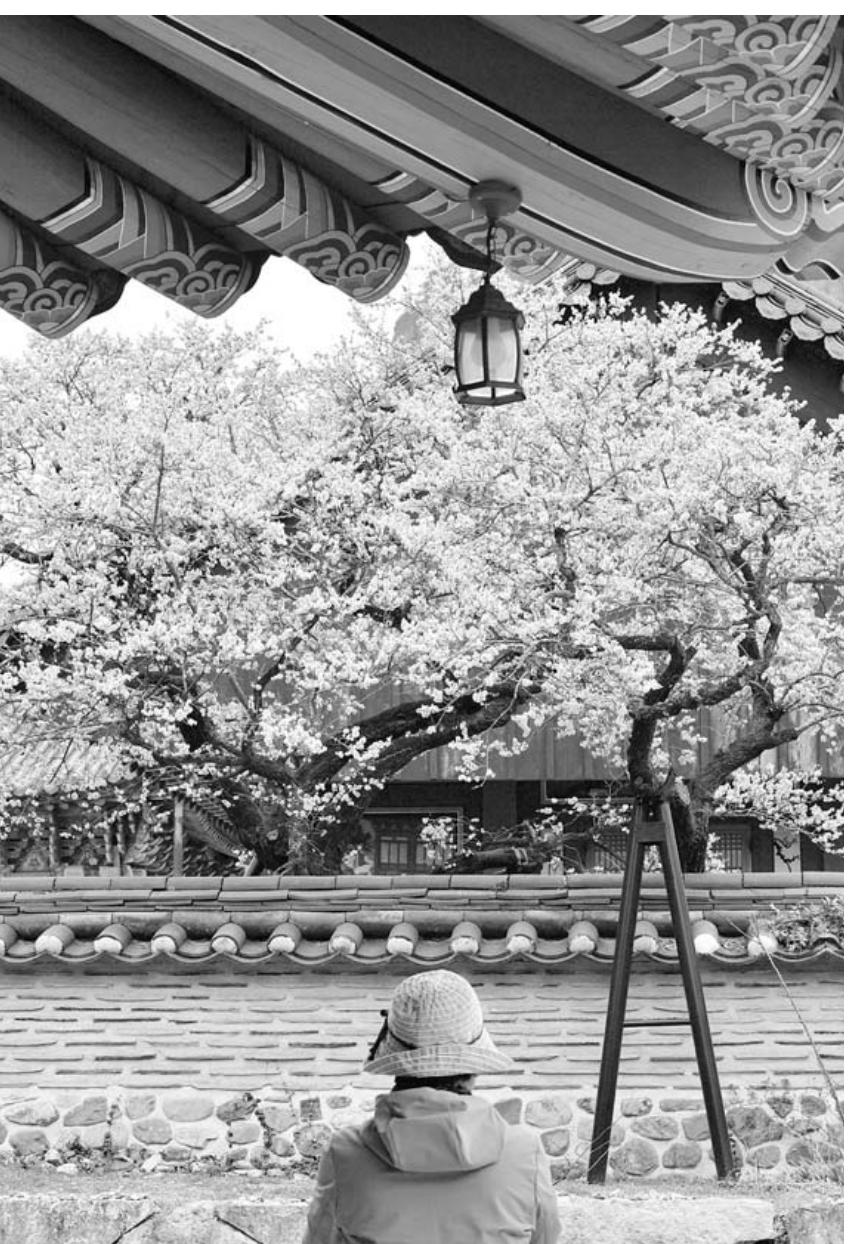
고흥군은 26일 "거금대교 복층 탐방로 정비사업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새단장했다"고 밝혔다.

거금대교는 국내 최초로 자전거·보행자도로(1층)와 차도(2층)로 설계된 복층 교량으로 소록도를 지나 거금도로 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탐방로가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아주 매력적인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거금대교 탐방로를 새롭게 포장하고 곳곳에 현실감 넘치는 트리아트와 벽화를 설치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추가했다. 또한 거금휴게소 일원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쾌적한 여행환경을 위한 사업이 앞으로도 계획돼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거금대교가 매력적인 관광지로 주목받아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길 기대한다"며 "군의 대표 관광지인 녹동·거금권역을 더욱 쾌적하고 매력적인 여행 스팟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고흥군은 매주 토요일 녹동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를 비롯해 소록대교·거금대교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거금도 돌레길 정비사업,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 등 녹동·거금권역의 다양한 여행 콘텐츠 구축에 많은 역할을 집중하고 있다. /고흥=최보훈기자



아름다운 봄 인사. 천년고찰 정성군 백양사의 고불매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천년기념물 제486호로 지정된 고불매는 강릉 오죽헌 울국매, 구례 화엄사 화엄매, 순천 선암사 선암매와 더불어 대한민국 4대 매화로 손꼽힌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중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제공>

구례군-전남동부지역본부, 상생협력 정책간담회

김순호 구례군수, 지리산정원 등록 등 현안 협조 요청

구례군은 "최근 산동면 산수관 회의실에서 전남동부지역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김순호 군수와 정창균 전남동부지역본부장

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순호 군수는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립 불교문화유산원 건립 ▲향토 문화유산 구례남약사지 복원사업 ▲대표축제 기반 조성 지리산 남약제 ▲서시천

경관조명 설치 사업 ▲지리산정원 등록 등 구례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례군과 전남동부지역본부의 상생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구례군의 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화순군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

화순군은 26일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화순읍 마누엘 교회(화순읍 화동로 소재)에서 행복한 노인대학 수강생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은 행복한 노인대학 수강생들에게 치매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치매 예방수칙 3·3·3 ▲치매안심센터 사업 및 이용 안내 ▲원예치료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화분에 식물을 심고 관리하게 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및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켰다.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군의 특색을 살린 한천면 국립 화순 지류의 숲과 연계해 매주 화·목요일에 '초롱초롱 숲마실 프로그램'과 '두드림 광광'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해 회차마다 무료로 운영하는 안심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화순=이병철기자

여수시, 지속가능 중장기 로드맵 마련 '첫 발'

'현재·미래 잇는 미항 여수' 목표...연구 용역 추진

여수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첫 발'을 뗐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시정 회의실에서 올해 첫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에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주요안건으로 상정하고 용역에 대한 과업 착수를 알렸다. <사진>

회의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부시장을 단장으로 부서장 30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자문 TF 팀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미항 여수'를 목표로 20년 간의 기본전략과 이에 따른 5년간 추진계

획수립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추진된다.

기본 전략·추진계획에는 ▲여수시 여건 및 현황분석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성과지표 개발 및 이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용역 과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후 ▲지방소멸,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 제시 ▲해양, 관광, 산업 등 여수시 특성에 맞는 분야와 시책 과연계한 과제 집중 발굴 ▲관련 부서의 책임감 있는 실행력 요청 등을 제언했다.

정기명 시장(공동위원장)은 "논의된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담양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최

1회 추가경정예산·조례안 등 16개 안건 처리

담양군의회는 26일 "지난 25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월2일까지 9일간 회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개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은 최용만 의장의 담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조관환 자

치행정위원장의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서 의원의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명영 의회운영위원장의 담양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의 조례안 4건과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수가 제출한 8건이다. 또한 511억원을 증액해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4월2일 폐회식에서 최용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농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담양군의회의원 모두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해 군민의 혈세가 더욱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양제철소, 초등생 자녀 있는 직원 1박2일 글램핑 '호응'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앞장

광양제철소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1박2일 글램핑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4일제를 도입하며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본격적으로 앞장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1박2일 글램핑 행사를 이달 말까지 2개 차스로 나눠 총 143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1차 행사는 자연생태 체험관광장으로 각광받는 갯벌의 생태가 훌륭하게 보존돼 있고 토끼와 거북이, 용왕이 등장하는 '별주부전'의 전설이 서려있는 비토섬에서 지난 22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됐으며 2차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광양제철소가 준비한 ▲아빠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BBQ 파티 ▲갯벌체험 ▲캠프파이어 ▲애니메이션 영화 시청 ▲팝아트 원데이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자녀와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특히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를 통해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한 레크레이션과 캠프파이어에 직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직원들은 아이들이 아빠하면 생각나

는 단어를 적어 만들어진 빙고를 통해 아이의 인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아빠가 불러준 풍선을 멀리 날리는 게임을 진행하고 아빠를 칭찬하는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함께 나눴다.

광양제철소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위해 '사춘기 자녀와의 진솔한 대화시간'을 주제로 글램핑 행사를 오는 하반기에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양홍철기자

